"역시 양궁 한국" 리커브 전종목 석권

이창환-주현정, 남녀 개인전 동반 우승

결승서 팀 동료 임동현-곽예지 따돌려

한국양궁이 리커브 남녀단체 우승에 이어 개인전까지 휩쓸어 세계최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 리커브 남녀 개인전 결승에 출전한 이창환(왼쪽)과 주현정(오른쪽)이 우승을 확정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한국 양궁은 역시 최강이었다.

남녀 대표팀의 이창환(두산중공업)과 주현정(현대모비스)은 9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개인전에서 각각 국제대회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전날 남녀 단체전을 휩쓴 한국은 이로써 이번 대회 리커브 전 종목을 석권하는 쾌거를 올리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창환은 9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마지막날 남자 리커브 결승에서 팀 후배 임동현(청주시청)을 113-108(120점 만점), 다섯 점 차로 꺾고 감격의 금메달을 따냈다.

이창환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과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지만, 국제대회 개인전에서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은메달을 제외하고는 단 한 개의 메달도 따내지 못하는 '개인전 징크스'에 시달려왔다.

이창환은 3발씩 4엔드, 총 12발을 쏘는 결승에서 2엔드까지 56-55, 한 점 차의 불안한 리드를 지켰지만 3, 4엔드에서 임동현이 한 발도 10점에 꽂아넣지 못하는 사이에 10점을 3발이나 기록하면서 예상 외로 손쉽게 승리했다.

임동현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단체전 2관왕 2연패 달성 직전에서 무릎을 꿇었다.

앞서 열린 여자부 리커브 결승에서는 대표팀 맏언니 주현정(현대모비스)이 팀 후배인 여고생 신궁 곽예지(대전체고)를 113-112, 한 점 차로 꺾고 감격의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에 처음 선발된 주현정 역시 이번 메달이 국제대회 개인전 첫 금메달이다.

1997년 이후 12년 만에 여고생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를 노리던 곽예지는 1점이 모자라 눈물을 삼켰다.

두 선수는 2엔드까지 앞서거나 뒤서거니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1엔드 주현정이 10점 두 발 쏘아 29-28로 한 점을 앞서나갔지만, 2엔드에는 곽예지가 두 차례 10점을 맞혀 57-56으로 한 점을 앞서나갔다.

3엔드 3발을 쏜 결과 84-84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두 선수의 승부는 4엔드에서 가려졌다.

곽예지와 주현정은 나란히 첫발을 9점에 꽂아넣었지만, 두 번째 발사에서 곽예지가 9점을 기록한 반면 주현정이 10점을 쏘면서 승기를 잡았다.

곽예지는 마지막 12발째를 10점에 꽂았지만, 주현정 역시 10점 과녁을 명중시키면서 승리의 여신은 주현정에게 미소를 보냈다.

한편 오진혁(농수산홈쇼핑)은 3-4위 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루반에게 110-111, 한 점차로 지면서 남자는 1~3위 싹쓸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러시아(금2 동1 은1)와 미국(금2 동1)는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세돌〉 〈이창호〉 〈최철한〉 〈조훈현〉

이세돌, 돌 한수에 6만 8천원

■국내 프로기사 1억원 벌려면

세계 최강인 한국 프로바둑계 스타들은 1억원을 버는데 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인가.

아직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의 좁은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둑을 거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프로스포츠 시장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일류급 프로기사는 평범한 샐러리맨의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다.

먼저 지난해 상금왕에 오른 이세돌 9단을 보자.

이창호, 바둑알 4,417개 부지런히 옮겨야 1억

최철한은 한 판당 평균 105수…9판만 두면 돼

2008년 이세돌은 꼭 100판의 공식대국을 벌여 7억1천930만원을 벌었다. 한 판당 720만원 꼴이다. 이세돌의 한 판당 평균 수수(手數)는 209수. 그 중에 절반은 상대편이 둔 수니 이세돌이 바둑판위에 놓은 바둑돌의 수는 104.5수다. 바둑판위에 돌 한 개를 올려놓을 때마다 6만8천832원이 그의 지갑 속에 들어온다. 바둑돌 1천453개를 놓으면 1억원이다. 판수로는 14판이고 날짜로 환산하면 51일이면 1억원을 돌파한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돌부처' 이창호 9단은 어떨까. 지난 해 88판을 소화한 이창호는 이세돌과 박영훈에 밀리며 총 2억3천660만원으로 상금랭킹 3위에 머물렀다.

이창호가 둔 바둑의 평균수순은 이세돌과 같은 209수다. 역시 한 판당 104.5개의 돌을 바둑판위에 올려놓았다.

돌 한 개당 2만2천640원이니 이창호는 부지런히 뇌가 시키는 대로 바둑알을 4천417개를 옮겨야 1억을 번다. 21판을 두어야 하니 생각보다 벌이가 시원치 않다.

올해 우승상금 40만달러의 응씨배에서 우승하며 '큰 것 한방'으로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철한 9단의 경우는 어떨까.

8월말까지 53판을 둔 최철한의 누적 상금은 5억8천700만원이다.

한 판당 210수를 두어 평균 1천110만원을 벌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241만원이다. 바둑돌 한 개당 평균 10만5천480원 꼴로 9판을 두면 1억원이 생기니 지난해 이세돌보다 벌이가 좋다. 1억원이 입금되기까지 바둑판위에 최철한이 올려놓은 돌은 948개다. 41일이면 1억원을 모은다.

그러나 모든 프로세계가 그렇듯이 프로바둑계의 그늘도 짙다.

'바둑황제' 조훈현은 지난해 5천360만원을 벌어 샐러리맨의 부장급 연봉에 그쳤고, '세계최고의 공격수'라던 유창혁은 3천870만원으로 '대리급'이다.

이들은 이제 상금보다는 각종 바둑행사, TV 해설, 후진 양성 등으로 생활한다.

프로세계라는 것이 그렇다. 나이들고 실력 떨어지면 밀려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다. /연합뉴스

"박지성은 아시아의 별"

'맨유 전설' 찰턴경 극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살아있는 전설인 보비 찰턴(72) 경이 박지성(28·맨유)을 아시아축구 최고의 선수로 치켜세웠다.

찰턴 경은 9일(한국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실린 아시아 축구와 관련한 기고에서 박지성에 대해 "맨유의 미드필더이자 아마도 아시아 최고의 프로축구 선수일 박지성은 한국의 아이콘이 됐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박지성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성실한 태도에 후한 점수를 줬던 찰턴 경이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찰턴 경은 1954년부터 1973년까지 맨유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사상 첫 우승으로 이끈 당대 최고의 선수였다.

찰턴 경은 이번 기고에서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1966년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것을 한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15년 전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중계되면서 아시아에서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2002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관심은 가속화됐으며, 데이비드 베컴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볼트 "고향이 그리워!"

피로 누적 호소…대구육상 참가 무산

'지구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의 한국 나들이가 무산됐다.

25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릴 2009 대구 국제육상대회에 볼트가 출전한다고 발표했던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 '볼트가 심신이 지쳐 방한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문동후 조직위 사무총장은 "어젯밤 볼트의 에이전트로부터 전자메일을 받았다. 집을 떠나 두 달 이상 유럽에서 지낸 볼트가 여러 면에서 지쳐 고향에서 쉬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까지 설득했지만 볼트가 한국을 찾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볼트를 후원하는 다국적 스포츠용품 업체 푸마의 한국지사인 푸마코리아측도 "볼트측이 이번주 말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벌어질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월드애슬레틱 파이널이 끝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피로를 호소, 방한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100m(9초58)와 200m(19초19)에서 세계기록을 보유한 볼트와 한국팬의 만남은 불발됐다. 볼트를 내세워 육상 붐 조성을 노렸던 대구 조직위원회의 계획도 치명타를 맞았다.

참가 문의가 쇄도, 유럽에 머물며 여러 대회에 출전했던 볼트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AAF 골든리그 메모리얼 반담 대회 200m에서 우승한 뒤 "몹시 피곤해서 막판 25~30m는 제대로 뛸 수 없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향수병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아마복싱 주민재 8강 좌절

주민재(24·상무)가 2009 세계아마복싱선수권대회 16강에서 탈락했다.

주민재는 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회 8일째 페더급(57kg) 16강전에서 오스카 발데스(멕시코)에게 6-9로 판정패해 8강 진출이 좌절됐다.

주민재는 1라운드에서 4-3으로 앞섰지만 2라운드에서 1-2, 3라운드에서 1-4로 열세를 보인 끝에 역전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10일(목)

▲2009 AVC 여자배구〈일본 : 대한민국〉(16 : 00·MBC ESPN)

▲2009 프로야구〈KIA : 한화〉(18 : 10·KBS n스포츠) 〈LG : 삼성〉(18 : 15·SBS스포츠) 〈히어로즈 : 두산〉(18 : 15·MBC ESPN·Xports)